

“화순 미래 달린 ‘백신 허브’ 조성 전력...군민 삶의 질 높일 것”

민선 6기 2년 설계
구 충 곤 화순군수



구충곤 화순군수는 “앞으로도 신성장 동력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을 집중 육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명품 화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 군수는 민선 6기 출범 후 군민 화합과 군정 안정을 밑바탕으로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6개 분야 33개 단위사업으로 세분화해 내실있게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분야별 성과를 거두며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CEO대상’, ‘고객감동 브랜드 지수 1위’ 등 행정서비스를 비롯해 지속가능경영·문화관광·혁신부문 등 총 18건의 굵직한 상을 잇따라 수상했다.

또한 지난 1년간 각종 공모사업과 국비활동을 통해 확보한 국비는 총 503억원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했다. 이 가운데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등 총 25건 129억원을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했다.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유치 박차
문화·관광·스포츠산업 집중 육성
전남대 의과대학 이전 적극 추진

구 군수는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며 “이번 사업에 화순의 미래가 달렸다. 경쟁력 있는 사업인 미생물 실증지원센터(950억원)와 백신 실용화센터(150억원)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군수는 문화·관광·스포츠 산업 등 ‘굴뚝 없는 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도 내놴다.

구 군수는 “적벽 개방은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대표적 성공 사례이자 문화를 산업화하는 첫 번째 실험”이라며 “앞으로 ‘국가 명승’으로 지정해 문화관광의 산업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 산업도 화순군이 ‘굴뚝 없는 산업’으로 집

중 육성하는 분야로서 지난해 도 단위 이상 16개 스포츠 대회와 전지 훈련지를 유치해 47억여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등 스포츠 메카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고 덧붙였다.

군은 주민 맞춤형 복지행정과 명품교육도시 기반 마련에서도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뒀다.

민선 6기 공약사항인 ‘100원 효도택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 교통 오지마을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에 크게 이바지했다. 군은 앞으로 ‘100원 효도택시’ 대상을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500m 이상인 마을로 확대해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구 군수는 민선 6기 2년차 군정운영 청사진도 제시했다.

군은 ‘화순군 종합개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미래지향적 비전을 을 제시하는 것을 비롯해 ▲생물의약산업단지 글로벌 백신허브 조성 ▲문화·관광·교육도시 위상 정립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기업유치·고용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음식을 비롯해 기념품·관광지·특산물·거리·전통시장·숲·교육·축제·휴양 등 10대 분야별

명품화를 통해 ‘명품화순’ 군정의 시책을 가지화하고, 복지, 건강증진, 안전, 문화, 생활운동 등 5대 국민행복 시책을 추진한다.

또한 운주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 관광 활성화, 민연산 명품올레길 조성(118억원), 전남대 의과대학 이전 등 문화·관광·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구 군수는 화순 백신산업 특구 포함 광주 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농심사 화순공장 대규모 증액 투자(1113억)를 통해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을 유치하는 등 생물의약 산업단지를 글로벌 백신허브로 조성하겠다는 복안도 내놴다.

구 군수는 “370억원을 들여 화순 메가 바이오 산업단지(제2산업단지) 조성 구상과 제2 농어촌 뉴타운 조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충곤 군수는 “취임 2년차에는 지난 1년간을 뒤 돌아보고 아쉬운 부분과 문제점을 분석해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화순군청에 설치한 ‘적벽 포토존’ 호응 좋네

민원 처리하고 기념사진 찍고...열린 공간 추억거리 제공

화순군이 최근 군청 민원실에 ‘적벽(赤壁) 포토존’을 설치해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해부터 사전 인터넷 예약으로 운영되는 ‘적벽 투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관광객 수요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어 투어를 못한 민원인들에게 추억거리를 담아갈 수 있도록 ‘적벽 포토존’을 만들었다”고 9일 밝혔다.

포토존을 이용한 한 군민은 “군청 민원실에서 화순 적벽도 구경하고 기념사진까지 찍으니 실제로 적벽에 온 느낌”이라며 “포토존을 설치하니 민원실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군민의 열린공간으로 활용돼 좋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화순군은 지난해 9월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인 화순군 이서면 동복댐내 적벽 개방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협약서 교환했다. 지난 1973년 5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던 적벽이 개방되며 전국적인 대표관광지로 급부상했다.

화순군은 ‘중동 호습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중단된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지난 4일 재개했다.

군은 ‘중동 호습기 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적벽 투어를 잠정중단했으나 최근 안전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투어를 재개했다.

적벽 투어에 참여하려면 2주일 전 오전 9시부터 화순군 버스투어 홈페이지(tour.hwusun.go.kr)에 접속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투어는 매주 수·토·일요일, 오전 9시 30분, 오후 1시, 오후 3시 30분 운영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중소기업서 능력 펼치세요... 화순군, 청년인턴 6명 모집

화순군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군은 지난달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3개 기업(한국인스팜, 대전환경산업, 화순한약재유통)이 선정돼 기업에서 일할 인턴 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 인턴이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군은 업체에 1년간 최대 120만원까지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현재 휴학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참여 희망자는 참여기업 중 근무희망 기업을 선택해 ‘전남도 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job.jeonnam.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화순군청 산업경제과로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인턴 모집은 인원이 마감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화순군 관계자는 “취업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인재들이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중소기업에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청년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의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일자리 경험과 정규직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청년 인재의 채용을 지원해 인력난 해소를 돕는 청년 고용촉진 사업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페이지(job.jeonnam.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화순군청 산업경제과로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인턴 모집은 인원이 마감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화순군 관계자는 “취업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인재들이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중소기업에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청년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의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일자리 경험과 정규직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청년 인재의 채용을 지원해 인력난 해소를 돕는 청년 고용촉진 사업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장성경찰 교통질서 간담회

모범운전자 회원 42명 참석

장성경찰서(서장 김용수)는 최근 모범운전자 장성지회(회장 윤태진) 회원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2·4분기 근무성향 점검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장성경찰은 점검에 앞서 교통약자 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질서 확립에 앞장선 모범

운전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중 장성에서 열리는 타구와 오픈워터(수영마라톤) 경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화합을 다짐했다

김용수 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관리 등을 통해 ‘교통 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장성’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장성군 기업 유치 활발...1년간 47개 기업

992억 투자·820명 고용창출

민선 6기 장성군이 활발한 기업유치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9일 장성군에 따르면 민선 6기 출범 이후 1년 동안 47개의 유망기업을 유치해 992억원의 투자액을 이끌어내 목표(120개 기업유치) 대비 40%를 달성했다. 이는 820명의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역에 동자를 튼 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업과 친환경 녹색성장 시대에 부응하는 친환경 산업 관련 업체가 주를 이뤘다.

특히 올 하반기 준공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나노기술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려 ▲IT(정보기술분야) ▲NT(나노기술분야) ▲BT(생명과학기술분야) ▲ET(환경기술분야) 등 첨단기술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입주하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이 같은 투자유치 성과는 장성군의 뛰어난 입지 조건 때문이다. 호남·서해안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과 인접한 광주 하남공단 및 평동산단 등 기업 입지의 최적 조건을 갖췄다.

군은 지난해 10월 투자유치 전담 부서인 ‘고용투자정책과’를 신설해 안정적인 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부지확보에 노력했다. 또 기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장성군 관계자는 “민선 6기 목표로 했던 120개 기업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기업 인프라를 구축해 경쟁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최근 3년 연속 전남도 투자유치 대상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기업유치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제4회 2015

청소년축제

The 4th Youth Festival

2015. 8. 1 SAT 10:00~20:00 상무지구 Fantasy4 뮤직페스티벌 행사장 일대

공연대회 모집 안내 | 교육부 장관상 및 각 기관장상 수여

모집분야 | 공연예술분야(댄스, 음악, 풍물 등), 3·3 길거리 농구대회, 학교폭력 척결 영상 공모전, 학교폭력 예방 포스터 공모전

대상 | 중·고등학교생 및 청소년(참가비 무료)

모집기간 | 7월 21일까지(영상, 포스터 부문), 7월 28일까지(공연, 농구대회 부문)

문의전화 | 062.220.0555 / 010.5156.5596

참가신청 |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youngkwangju>

대학선택을 위한 주요 대학 입시홍보관

진로 탐색 및 작성상담 운영

신나는 체험활동관 운영

대학생 인기 댄스, 밴드 공연

경품 이벤트

No Bullying, Yes Bling!

주최 | (주)광주일보사 · (사)아시아문화

후원 | 교육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